

한국영아언어검사

K-LII

검사결과분석

기관명	(주)테스피아
검사일	2016년 10월 19일
생활연령	2세 1월 (25개월)
성별	여
성명	고유미

● 검사설명 및 인적사항

대상자명	생년월일	생활연령	성별	검사일	기관명
고유미	2014년 09월 19일	2세 1월 (25개월)	여	2016년 10월 19일	(주)테스피아

● 검사프로파일

발달영역		수용언어	표현언어	언어지수	
최우수	19				
	18				140
	17				130
우수	16				120
	15				110
평균상	14				100
	13				90
평균	12				80
	11				70
	10				60
	9				50
경도지연	8				40
	7				30
중도지연	6				20
	5				10
최중도지연	4	3	3		0
	3			55	0
	2				0
검사결과	원점수	14	20	언어지수	55
	척도점수	3	3	척도점수 합	6
	발달수준	중도 지연	중도 지연	통합언어수준	중도 지연
	백분위	1%ile	1%ile	백분위	1%ile
	발달연령	11개월	13개월	통합언어연령	12개월
	신뢰구간	9~13개월	11~15개월		

● 종합결과분석

<고유미>은 언어발달지수(LQ)가 [LQ](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최중도지연(severe retarded)**의 발달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위영역별 언어발달수준을 알기 위하여 **척도점수**를 산출한 결과, **수용언어(3, 중도지연)**, **표현언어(3, 중도지연)**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하위영역별 **현재 언어발달연령은 수용언어(11개월)**, **표현언어(표현언어발달연령)개월**이며, **통합 언어발달연령은 (12개월)**입니다. 이러한 검사결과는 이 아동의 언어발달이 아주 심하게 지체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언어발달지체 등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발달전문가로부터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받아 보아야 하며, 아동의 발달 영역별 약점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개별적이고 집중적인 특수교육적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와 교사는 아동이 생활 속에서 즐겁게 놀면서 직접 만지고, 보고, 듣고, 냄새도 맡고, 맛보는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발달을 촉진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수용언어

표현언어

전문가조언

생활연령	원점수	척도점수	발달수준	백분위	발달연령	신뢰구간
25개월	14	3	중도 지연	1%ile	11개월	9~13개월

● 수용언어발달특성

현재수용언어발달특성	또래수용언어발달특성
1. '윙크 해 봐'라는 지시에 따라 적당한 제스처로 반응합니다. 2. '공은 어디 있니?'와 같은 간단한 질문을 이해 합니다. 3. 새로운 단어의 이름에 관심을 보입니다. 4. 그림 속의 이름을 말해주면 적어도 1분 정도는 흥미를 가집니다. 5. '안돼'라는 말에 일관성 있게 하던 행동을 멈춥니다.	1. 일상 동사(먹는다, 입는다, 잔다)에 해당하는 그림을 가리킵니다. 2. 눈/코/입 등의 신체기능을 이해합니다. 3. 세부적인 신체부위(턱, 눈썹, 팔꿈치)를 알고 있습니다. 4. '이거 뭐야'하는 질문이 점점 많아집니다. 5. '크다/작다'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 수용언어 교육정보

•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박수를 쳐 보세요.

아이의 박수치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을 즐깁니다. 아이의 손을 맞잡고 함께 박수치세요. 이야기에 맞춰서 박수치 움직여보세요. "박수 박수 박~수 박수치세요! 아름다운 소~리 만들어봐요. 박수 박수 박~수 박수치세요. 손을 무릎에 내려놓아요. 머~리 위에서 박수치세요. 배~꼽 앞에서 박수치세요." 단순히 박수만 치기보다는 지 시어에 따라서 다양하게 쳐보면 언어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 엄마와 둘만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세요.

아이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시간을 좋아하므로, 다른 시간에 비해 훨씬 온순해집니다. 하루 중 일부이긴 하지만 마음이 통하는 상대가 매일 반드시 함께 있어 준다는 사실은 정서 면이나 행동 면에서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와 상호작용 놀이를 계속해 주세요. 아이가 사물이나 사건의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고 그것에 관계되는 단어를 익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높이, 높이'라는 말은 안아 올리는 동작과 연결짓습니다. 둘이서 같은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놀이는 같은 대상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 그림책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림책을 보면서 아이가 말하는 긴 음절을 들어보세요. 종종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그 이야기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아이는 자신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뿐이지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은 이 시기에도 무척 뛰어납니다. 책에 관심을 가지고 책을 사랑 하는 것은 아이가 책을 즐겨 읽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오늘은 엄마랑 빨간 사과가 그려있는 책을 볼까" "와, 여기 빨간 사과가 있어요." "초록색 애벌레도 있네요." "초록색 애벌레 어디에 있을까" "그래, 여기에 있지" "책 정말 재미있네." "책 잘 읽었어요. 정말 재미있었어." 잠을 재울 때 동요나 시를 들려주세요. 시계를 아이에게 보여주며 "똑딱똑딱" 하고 말해주세요. 별을 아이에게 보여주며 "반짝반짝" 하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시를 들려주세요. "잘자라 우리 아이 잘자라 우리 아이 시계는 똑딱 똑딱 하면서 잠을 자네 잘자라 우리 아이 잘자라 우리 아이 별들은 반짝 반짝 하면서 잠을 자네."

수용언어

표현언어

전문가조언

생활연령	원점수	척도점수	발달수준	백분위	발달연령	신뢰구간
25개월	20	3	중도 지연	1%ile	13개월	11~15개월

● **표현언어발달특성**

현재표현언어발달특성	미래표현언어발달특성
1.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의미없이 따라한다. 2. ‘ㄷ’, ‘ㅌ’, ‘ㄸ’, ‘ㄴ’, ‘ㅎ’와 같은 자음을 사용합니다. 3. 여러 가지 음성놀이 중에 몇몇 정확한 단어가 나타납니다. 4. 음악이 나오면 소리로 반응 합니다. 5.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물’, ‘까까’라고 말합니다.	1. 이것은 내 것, 아빠 것 등 소유대명사를 사용합니다. 2. 신변 욕구(손씻기, 화장실 가기)를 말로 표현합니다. 3. 두 단어 문장에서 부정어를 사용합니다(아빠 아니야, 안 먹어). 4. 자신의 욕구를 2~3개 단어로 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5. ‘크다/작다’의 형용사를 이해하고 사용합니다.

● **표현언어 교육정보**

• **아이 말을 완전한 문장으로 되받아주세요.**

아이가 한단어로 의사를 표현하면, 엄마는 아이의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능력을 지닌 통역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달라고 할 때는 아이가 원하는 걸 그냥 주지 말고 “아, 사과가 먹고 싶으니까 사과 좀 썰어달라고 알았어, 기다려. 금방 줄게, 엄마가”라고 완전한 말로써 아이의 의사표현을 다시 들려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은연중에 그 문장을 머릿속에 새겨 어휘력이 발달하게 되고,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점차 생기기 시작합니다.

• **정확한 발음으로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아이는 엄마의 말을 그대로 따라 합니다. 말투, 어휘, 억양, 쓰는 단어까지도 따라합니다. 그리고 초기의 이러한 언어습관은 이후 아이의 언어발달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 주어야 할까요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 주세요. 아이가 우리말의 정확한 발음을 듣고 그대로 따라 하다 보면 정확한 발음으로 이야기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책을 읽어줄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아이에게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부드럽고 천천히 말해 주세요. 아이는 모방의 천재입니다. 이때 들었던엄마의 말을 억양, 어투까지 아이가 따라 하게 됩니다.

• **다양한 어휘를 사용해 주세요.**

아이가 사용하는 언어는 제한적이지만, 이해하는 언어는 이전에 비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얼른 행동으로 옮겨 엄마, 아빠가 감탄하게 됩니다. ‘밖에 데리고 나갈까’ 라는 소리 한마디에 얼른 신발 신으러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해력이 높아집니다. 이때는 다양한 어휘를 사용해서 풍부한 언어사용을 도와주세요. 똑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해 주면 아이는 금세 여러 가지 표현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밖이 추워’라는 한마디 보다는 ‘밖에 눈이 와서 공기 얼어붙었어. 아아, 추운 겨울이야’ 라든가 ‘밖에 호호 입김이 날만큼 추운데 한번 나가볼까’라고도 표현해주세요. 아이는 여러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는 아이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 **짧고 간단한 문장을 사용하세요.**

아이가 한창 알고 싶어하는 것은 사물 이름입니다. 따라서 “엄마의 구두”, “○○의 오리” 등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짧은 문장으로 말을 걸어야 합니다. 또한 문장도 정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 자동차”가 아니라 “그것은 자동차야”라고 말해야 합니다. 조금 느리고 큰 소리로 말하며 다양한 가락을 붙여 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말하면 아이는 엄마의 이야기에 열심히 듣고 집중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하나하나의 단어의 소리를 익히기 쉽습니다.

수용언어

표현언어

전문가 조언

1. 아이와 단 둘이 대화하는 시간을 따로 만드세요.

어른과 집중해서 대화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질문을 하면서 아이의 관심을 끌어내도록 하세요.

2. 텔레비전을 끄세요.

텔레비전은 말하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텔레비전은 엄마, 아빠를 마주보면서 하는 대화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따라서 텔레비전은 끄셔야 합니다.

3. 눈을 마주보고 이야기하세요.

아이와 눈을 마주치는 것은 관심을 끌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이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고 확신하면 안심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하게 됩니다.

4. 정확한 발음과 완벽한 문장으로 표현하세요.

표준어를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날마다 책을 읽어 주세요. 책을 읽어주면 올바른 문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5. 폭넓고 다양한 언어를 접하게 해 주세요.

아이가 따라 하기에 좋은 간단하고 명료한 문법에 꼭 맞는 말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은 어려운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는 엄마 말을 되풀이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6. 짧게 말하세요.

너무 길게 말하면 엄마가 하는 말을 놓치게 됩니다. 아이의 반응도 볼 겸 쉬어가면서 말하세요.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짧고 간단한 문장을 사용하세요.

7. 한 단어를 말한 뒤 그것이 유추하는 말을 만들어 주세요.

아이가 “공”이라고 말하면, 엄마는 “그래, 통통 튀는, 빨갈고, 큰 공이네. 공놀이 하고 싶니?”라고 말해 주세요.

8. 아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엄마가 대신 말해 주세요.

아이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흥분하여 팔을 휘두르며 “작은 새, 작은 새”라고 말하면, “그렇구나, 작은 새가 많이 있구나. 날고 있어. 모두 날고 있어”라고 긍정적으로 대신 말해 주세요.

9. 소리로 장난하며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바바바’와 같은 단순한 소리를 따라 하라고 한 후, 아이의 소리를 반대로 엄마가 흉내 내면서 소리 연습을 시켜 보세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소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10. 노래를 부르고 이름을 불러 주세요. 동요를 많이 가르쳐주세요.

같이 부르는 것에 익숙해지면 엄마가 한 템포 쉬어도 아이 혼자 가사를 놓치지 않고 부른답니다. 손가락 놀이도 좋습니다. 노래에 맞춰 손으로 장단을 맞추는 거죠. <곰세마리>나 <송아지> 같은 노래로 시작하면 좋습니다.